88과입니다. 과부의 두렙돈 이라는 부분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와 비슷한,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또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집니다

41.예수께서 연보 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 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 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3.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예 본문은 유대 종교가들의 위선과 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대조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긴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하는데

이들의 생활을 대조하면서 말씀하면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설명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외형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짧고 두군데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본문들 굉장히 긴거 보면 참 별로 생각할 겨를도 없고 내용을 이해하고 바로 전달하기 바쁜데 요거는 본문이 굉장이 짧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개인적으로 얻을수 있는 유익이 상당히 많을 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보면 짧고 굵은 교훈을 주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많이 읽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쭉 살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뭐 특별히 해석할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바로 적용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번에 가난한 과부, 되어잇는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매우 연약한 위치입니다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밭에서 곡식을 벨때에 다 싹 걷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남겨둘것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농사지을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은 그 떨어진 것을 가

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떨어진 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 했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시죠 ?

다윗의 족보에 오른 한 이방여인이 생각나죠. 룻

보아스가 특별히 말했자나요, 다 걷지 말고 그 여인을 위해서 조금 남겨 두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그래도 평상시 거둘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거둘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가서 그 시어머니가 놀랐자나요

그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 그렇게 해놓는 거고

특별히 과부와 고아는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만 계시다면 버리는거 없이 싹 걷어야 될텐데 그런 것들을 남겨두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은 무관심의 대상이 될수 있었던 이들에게도 상당히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라는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나그네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되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되있죠.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애정을 같고 계시다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 과부라는 처지도 좋지 못한데, 가난하기 까지 했습니다

아유, 돈이라도 좀 많은 과부는 괜찮을 텐데 , 너무 가난 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돈도 크게 여겨지기 마련이죠

우리는 백만원 그러면 , 헤 백만원 그러는데 어떤사람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값이 백만원 이더라고요?

아이스 크림 하나가, 딱 먹는게, 그니까 세상에는 똑같은 화폐를 보고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한 여인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가지고 ,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정도, 이정도였자나요

그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부스러기만 갖고서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 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일부의 음식을 가지고도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건 정말 부스러기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나온 과부는 굉장히 가난 했습니다.

2번에, 생활비 전부를 헌금 했다라고 되어있는데

생활비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여인에게 있어서의 생활비란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는 비용입니다

정말 자기 모든 소유입니다.

비록 외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큰것이였습니다

이 두렙돈의 가치가 어느정도냐 라는 것을 쭉 적어 놓았는데요

1일 노동자의 128분의 1정도 되는 작은 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도 1일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만이천 팔백원이라면 얼마 헌금 한 거죠?

백원.

십이만 팔처넌이면? 천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칩니다

그니까 굉장히 적은 돈이죠.

굉장히 적은돈. 여러분의 하루 용돈이 얼마나 됩니까?

밥값만해도 오천원 인데요? 이러면 여기 오천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 나는 거의 뭐 못먹고 살아요 그냥, 하루용돈 5천원이예요

이여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돈이죠

나는 오백원도 없는데요? 이럴수 있자나요

가끔 폐휴지 이런거 이제 모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 보니까요,

놀랐어요. 책같은거 있자나요, 이만큼 막 가져가도 그게 돈으로 따지니까 얼마 안되더라고요 몇백원이 안돼요, 들수도 없는 그 무거운 것이

그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어쩌면은 정말 몇백원 내지 몇천원도 못모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니까 그분에게는 백원 이백원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껌값도 안되는데 그죠. 껌 요세 되게 비싸자나요

껌값도 안되는 그 돈을 벌려고 어떤분은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분이 가끔가다가 헌금하는거 보면요, 놀라워요

몇만원, 때로는 헌금 몇만원이요, 그게 우리가 상상할수있는 몇만원이 아니예요

그분에게는 정말 몇십만원 몇백만원의 가치가 있는 거에요

정말 받기가 미안할 정도의 돈이예요

마음이 들여졌기 때문에 그럴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낸 헌금은 정말 작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작은것.

화폐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돈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넣은 거니까, 가장 작은 단위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십원 이잖아요

십원이면 여기에 천이백 팔십원 이 되는 거죠

작은 가장 작은 화폐단위

심지어는 참새 두 마리의 가격정도가 되는 앗사리온의 4분의 1 , 이렇게 되있죠

가장 작은 고드란트의 2분의 1인데 , 이 고드란트는 참새 2마리를 살수 있는 앗사리온의 4분의 1이니까

이거 참새 반의 반마리 사는거네, 얼마나 적은 돈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고, 자기 모든 소유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은 진짜 가난하죠

벼룩의 간을 빼먹느냐 그러는데 벼룩의 간보다도 작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정도의 돈이 하루 생계가 될정도로 매우 가난한 여인이였습니다

이여인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놀랍죠

3번 ,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써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헌금을 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외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눈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들의 모습이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 부자들은 그 헌금의 액수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그 헌금 넣는게 딱 보였나봐요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신용카드 그런게 없고 수표도 없고 아마 돈이 두껍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넣었겠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넣는 것도 보였자나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로 위의 구절에서 밝히듯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

도하는 자들에게 이 여인은 인상을 찌푸리는 존재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미약하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정말 초췌한 모습의 한 사람이 와서, 정말 우리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한분이 딱 들어와서 밥먹을라고 딱 서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는 그런거 한번 봤거든요, 여기와서 식사를 하고 나가시는 걸 봤는데, 정말 구별이 탁 되더라고요

구별이, 딱 되요. 평상의 모습을입고와도 눈에 딱 튈텐데 근데 복장 자체가 틀리니까 너무나 눈에 띄더라고요

이 여인도 그렇지 않았을까.

부자들이 입는 옷과 이 여인이 입는 옷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을거 아녜요

겉으로 봐도 얼른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부자들을 좋아했자나요,

바리세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자나요

그니까 부자들오면은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막 상석에 앉히고, 차별하고 그랬던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별로 안했는데,

남자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인격적으로 좀 무시하고 그랬는데 가난한과부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4번에 예수님이 말씀 하시자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한 행동을 살펴보자

공정한 시선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 예수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시기 위해 부자들도 보았고 가난한 과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수긍이 갈수 있도록 자세한 관찰을 통하여 살펴본 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먼저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 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쌔, 그랬죠?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라는 건 연보궤가 많이 있었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탁 앉아 있는겁니다. 보기 좋은 위치에

왜냐하면 앞에 서기관들의 외식을 쭉 얘기 했자나요?

그리고서 이제 잠시 앉으셨던 모양입니다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2절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그다음에 말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고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관찰은 꼭 필요한 것이죠

누구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런 말씀이 있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훼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 하는이라

이것 우리에게 적용해보면요, 사람은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 왜곡해서 보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좋은 선행을 보면서도, 내가 그것을 오해 해서 해석을 하고 다른 말을 퍼뜨리기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발없는 말이 멀리가고, 우리속에 이루어진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는데 회자되는 것이 없는데, 뭔가 조금만 안좋으면 그 말은 확 정말 퍼져요

누룩처럼 막 금방 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 수군수군 거리는 이야기가 당사자의 귀에 안들어 가겠어요? 들어가면 교제 나오기가 힘들어 지잖아요

그래서 모임을 나가는 분도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거없는 말들을

그런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기 전에 유심히 살펴봤어요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걸 계속 봤고

그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 하는 것도 유심히 본겁니다

그리고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속에 있다가 갑자기 봤겠죠 놀라서

충분한 살펴봄이있은 이후에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들도 뭐 그렇겠죠, 결혼 적령기가 되면은 수군수군 막 될수 있어요

나는 그냥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 하고 있는데, 사귀나봐. 그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거가 없는 말이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렇게 되있자나요

사랑과 선행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북돋아 주고

모이는 이유가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여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건 좋지 않은거 같아요.

그리고 교사들끼리 서로 교제할때도 근거 없는 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혹은 내가 그런이야기를 들었다면 내가 딱 듣고 그치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나는 한술 더 떠서 세상에 그럴수가, 내가 그럴줄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딴데

가서 형제만 알아, 자매만 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안좋은거 같습니다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되도록 이면 근거없는 말을 만들어서 혹은 잘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의 말을 통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시선에 색안경을 끼워주게 하는건 좋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은 정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집에서도 보면 그런거 같아요 집에서도.

아빠가 자면 피곤한거고, 애가자면 공부하기 싫은 거고, 그래요 안그래요

그럴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정말 이성없는 짐승 같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죄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그런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때도, 교사들 상호간에도 또 여러분들이 각자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 생활할때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어떤 성격 탓해 퉁명스럽게 한번 툭 내뱉었는데 그것이 마치 내 가슴에 큰 비수를 맞은 것처럼 오해하고 판단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아주 않좋은 악한 감정을 가지는 경우들도 혹 있을수있어요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가질수도 있어요

남편이 밖에 있다가 집에 딱 들어왔더니 어라, 별로 아는 척을 안하고 그래

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사람이 마음이 식었나 하고 오해할수 있는데 하루 종일 피곤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바로 그 현장 그것만 보니까 내 마음은 불편햇었다는 거예요

근거없는 말들, 근거 없는 표현들 이런것은 주의하고, 꼭 그렇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시선, 양 편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에서 나타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5번, 와서 넣는지라 되있는데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에 밑줄을 '와서' 와 '넣는지라'에 해 놓았습니다

헌금의 결심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작심 삼일이라고 그랬자나요,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결심을 나름대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쉽지않자나요

자신의 처지가 좋지 못하고 더구나 헌금할려고 하는 그 비용이 적을때는 더 망설여 질수 있겠죠

아 부자들 헌금 쫙하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가서 내가 그 동전 딱 집어늘려고 한다는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

이건 제가 어렸을때 생각해보니까 그런거 같아요, 어렸을때

어렸을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때

그때 교회당에 이제 크리스마스때 가고 뭐 행사있으면은 가끔 가서 선물만 받고 안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가면은 꼭 헌금을 하래잖아요, 자줏빛 헌금함 아십니까

자줏빛 헌금함, 십자가 딱 그려져 있고

그게 그렇게 딱 오는데요, 그거 할때마다 제 마음이 아픈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데,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는데, 다른 애들은 백원 딱 집어 넣는거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백원 집어 넣는게, 그죠 어떤 사람은 좀 큰거 집어넣고 나는 그냥 만지작 만지작 하고 없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착입고 누가봐도 딱 보니 부자예요

그리고 딱 돈봉투를 딱 집어 넣습니다

나는 , 동전 두 개를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그거를 집어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저는 어려울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 과부는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과감하게 결심을 하고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넣었습니다. 그 여인이 망설이고만 있는거예요

안하고 만지작 만지작하면서 아 챙피해, 이걸가지고 해봤자 모하겠어 하면서 결심하고 집을 나섰어요

연보궤가 앞에 지나갈려고 해요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그 동전을 손바닥에서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어요

그렇고 지나갔다면, 어땟을까

어차피 사람들 많은데 누가 넣는지 않넣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강제도 아닌데

안그래요? 기로에 있지 않았겠어요?

이거 내 하루 생계비인데, 내가 이거 없으면은 오늘 깜깜한데 근데 과감하게 넣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6번에, 풍족한 중에서 혹은 구차한 중에서 , 두가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구차한 중에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이여인을 칭찬 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비록 짧은 본문 이지만,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야 두렙돈도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참새 한 마리도 가치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가치있는데, 그 참새 한 마리 조차 살수 없는 돈이 예요, 이돈이

근데그것도 역시 가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니였는데 이게 주님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부자의 헌금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헌금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액수, 우리는 그 액수에 민감한데, 예수님은 마음에 민감하구나 라는걸 다시한번 생각 해 봅니다.

뭐 집에서도 그러지 않겠어요?

집에서 꼭 그렇게 뭐 잘 그렇게 잘 차려지면 감사하고 뭐 조금 있으면 불편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건 아내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거예요

요 앞에 테이블에 차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부인을 평가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은 옳은거 같진 않아요

우리의 신조가 있지 않습니까, 주는대로 감사하게

가끔가다 너무나 특별한 라면을 주면 정말 감사하게 먹는거 아니겠어요?

주는대로.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서 그렇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저녁 밥을 차려주고 이것저것 챙겨서 주겠어요

마음이죠 마음.

식당에 가보면은 돈을 주고 좀더 맛잇는걸 먹을수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이 느껴집니까 ?

이주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정갈하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나 먹기 좋게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까 ?

밥 조금 더달라 그러면 조금 돈 더 받자나요.

집에서는 더 안받잖아요

감사하죠 마음이예요 마음.

집에서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생활 할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건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왜. 사랑하면 표현하게 되어있어요

사랑하지 않고서도 표현을 할수 있지만 사랑하면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교회 여러 형제들을 섬기고 돕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드리게 되어있는거예요

근데도 거기에는 마음이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마음이

풍족한 중에서 구차한 중에서 .

내 생활이 구차한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일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7번에 여인의 헌신을 알아준 유일한 분, 예수님이라 되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연보궤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의외의 여인이였습니다

그 여인은 가난한 과부였고 그녀의 헌신의 정도를 두 렙돈으로 밖에 보일수 없는 가난한 형편의 사람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두 렙돈 안에 숨겨진 그녀의 마음이였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아왔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말 헌신되었다라고 말할수 있는 여인은 한사람이였어요

그 사람이 시선을 끄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쵸.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뭐 세상에 60억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관심의 대상이 되는건 성도입니다. 땅위에 있는 성도.

또 그 성도들 중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특별한 그 소수는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일꺼예요.

피라미드가 위로갈수록 적어지는 것처럼, 정말 이 여인처럼 헌신된 성도들의 비율도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한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되야 되는데, 헌신된 사람이 점점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도수가 늘어나면 헌신된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자꾸 줄어요 ,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많은걸 원하진 않았잖아요, 양으로 따졌습니까, 질로 따졌어요, 질.

그 헌신의 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8번, 우리는 누구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한 향유옥합도 받으셨고 두 렙돈도 받으셨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노동자의 1년 정도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귀한 향유 옥합도 받으셨고, 정말 적은 두 렙돈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나 의사, 의원 누가 같은 사람도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고

베드로나 요한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 학문이 없었던 그들도 역시 훌륭하게 쓰임이 되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귀히 쓰이던 천히 쓰이던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어쨌든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비싼돈도 통용되고, 싼 돈도 통용이 되요.

그렇잖아요. 더 많이 통용되는건 비싼겁니까 싼 겁니까

싼거죠.

싼 돈이 여러 사람 손에 들어가서 많이 통용이 됩니다.

집에 보면 이런건 굉장히 비싸 보이는 컵이잖아요, 가끔 가다 한번씩 쓰이는 컵입니다

그런데 집에 양치질 할때 플라스틱컵은 정말 수시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 저기 긁히고 막 이렇게 되도요, 왠만하면 안버리고 다시 씁니다

혹, 귀한, 비싸보이는 것은 아니여도 많이 사용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무리 깨끗하고 그래도요, 더러우면 못쓰잖아요.

정말컵이 없으면 양치질하는 컵으로 여기다 갖다 놀겁니다, 쓰라고

깨끗한게 중요하죠, 내가 누구 앞에 내 몸을 드러내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앞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 앞에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당대 종교가들 앞에 내 모습을 드러냈어야 됐기 때문에 서기관들 눈을 의식을 했습니다

혹은 다른 부자들을 의식했겠죠

이 가난한 과부는 서기관들을 의식했다면 그거 못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라는 사람이 있었던거 아시죠?

사실 얼마를 내라라고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물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의식했어 헌금을 했죠, 사람들을 의식 했죠.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따른 사람들도 그 앞에 보면은 권위자라고 바나바 나오잖아요,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믿음 대단하다고 막 그랬을 겁니다

이에 질새라, 나도 역시 그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자기 재산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를 드리면서 사람들 앞에 보일려고 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속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수 있습니다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다 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 혹은 종교가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헌신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뒤에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마음 속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늘 의식했던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종으로서의 헌신은 그 대상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웠을 지라도 정말 세우신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직접 상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 상을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줄수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받은 것은 담임 선생님께로 받았다라고 말할수 있지만

실제로 그 밑에 이름과 도장은 교장선생님 꺼잖아요

그럼 누구로부터 임명 받은거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의 직분이 사람을 통해서 추천과 권위에 의해서 혹은 마지못해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헌신의 정도를 나를 뽑아준 사람 정도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수준을 유지할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나온 부자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9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적은 달란트를 가졌을수 있습니다

적은 시간을 가질수 있습니다

또, 재물이 별로 없을수도 있습니다.

능력도 역시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신것을 받으십니다 .

없는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지도 않고 받겠어요? 그건 강도지.

예수님이 강도입니까?

준것을 받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요구할수 있죠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잖아요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것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그랬습니다

다 받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거 달라고 하는거 잘못된거 아니잖아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주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주님이 자랑스러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어떤 분 말합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어쩌죠. 난 못할거 같은데요 이거좀 해주시겠습니까. 난 어려운데

이거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난 안돼는데요, 부족한데요, 못하겠는데요

만약에 자식이 그러면 부모님 열받을 겁니다.

정말 이것저것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셔요

갓난아이가 걷는것도 못합니다, 대소변도 못가립니다.

그래도 자랑스러워해요. 그가 내 생명과 연결된 자식이라는거 하나만으로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이 늘 부족한 것처럼 한탄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거 같아요.

받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행복해 하고 즐거워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 라는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은거 아닙니다. 그것처럼 좋은게 어딨겠어요

내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수 있는 것처럼 이세상에 가치있는건 없다고 봅니다 .

누가 앞에 섰냐.

그런 희생을 사람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손해난다고 생각할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 봅니다.

1.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2.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

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 누구에게 드렸죠? 누구에게? 주께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수 있었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일을 힘에 지나도록 하는 이것도 결국 아까운 것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다음에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뭔가를 할려고 하는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

로마서 12장 , 1절2절 제가 읽습니다

1.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누가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 다는건 뭡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쪼개져 버리는 거잖아요 내자신은 온데 간데 없는 겁니다.

완전히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 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헌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2절 보면은,

2.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한느지 분명해 지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 그 뜻을 분별해 가면서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재산의 일부입니까, 내 물질의 일부입니까, 내 용돈의 일부입니까, 내 시간의 일부입니까

시간 없다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않좋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환경적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있는 그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건 혹, 핑계되는 이면에, 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감추고있을 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솔직해 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지식이 별로 없을수 있습니다.

가진 재물도 별로 없을수 있고 가진 시간도 별로 없을수 있어요.

이런 저런 복잡한 환경을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할수 있는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확실합니다. 있는것, 그것을 원하신다.

찾아보시죠, 있는 것이 많이 있을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룩을 제거 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서 샅샅히 뒤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릴만한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샅샅이 한번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려고 해보세요, 생각외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부자의 모습과, 가난한 과부의 모습 그 가난 한 과부에게 있었던 정말 적은것, 하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중요한 그것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고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셨고 정말 많은 것을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 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것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또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일을 행할수 있는 능력을 주신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때까지 우리가 있는 위치를 잘 지킬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나온 어린이들이 더 주님앞에 온전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말씀안에서 바르게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앞에 희생을 각오한 교사들이 모여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 역사해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능력을 더 한데 모아주셔서 주님의일을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의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많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주님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사로 지내면서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이 져야 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십자가를 질수 있도록 도와주옵서서

남은 시간 도 은혜가운데 도와주옵소서 언제 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